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3. 11. 1.(수) 06:00 ~ 23:00
- 상담건수¹⁾: 700건

II. 주요의견 내용

○ 진행자 호평(3명)

-프로그램명 : 「홍사훈의 경제쇼」

-방송일시 : 2023. 10. 31.(화) 1R (16:05-16:55)

최근 방송을 청취하다보면 진행자 홍사훈 기자가 하차를 암시하는 발언을 자주 한다. 해당 방송의 애청자로서, 또 홍사훈 기자를 신뢰하는 청취자로서 너무 아쉽다. 여러 방면에서 좋은 진행을 보여줬는데 왜 하차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계속 진행을 맡아주었으면 한다.

○ 결방 제언(12명)

-프로그램명 : 일일드라마 「우아한 제국」

-방송일시 : 2023. 10. 31.(화) 2TV (19:50-20:30)

KBS 2TV 일일드라마를 꾸준히 시청 중이다. 그런데 「우아한 제국」이 유독 결방이 잦다. 한때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문에 한동안 결방이 되었는데, 이날은 프로야구 중계로 또 결방이 됐다. 고정 시청자들이 있으니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없음.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1)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700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²⁾	계
314	48	-	-	338	700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338	227	15	-	1	119	700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116	584	-	700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548	6	54	92	700

시청자 의견	문 의
<p>【편 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TV 생생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방 제언 ○ 일일드라마 「우아한 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방 제언 ○ 「더 라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방 제언 <p>【보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뉴스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 요청 ○ 「사사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자 섭외 제언 <p>【드라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화드라마 「혼례대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자 호평 <p>【라디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사훈의 경제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자 호평 	<p>【방 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시 내고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갯김치’ 연락처 문의 44건 ○ 「2TV 생생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기짬뽕’ 연락처 문의 23건 ○ 「아침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방송 투표 방법’ 문의 16건 ○ 「가요무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청’ 문의 8건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정보’ 문의 7건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시청」 문의 3건 ○ 「수신기술」 문의 3건 <p>【경 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문의 21건 ○ 「프로그램 구입」 문의 16건 ○ 「전화교환」 문의 6건 ○ 「주차」 문의 3건 ○ 「사업 및 행사」 문의 3건 외 5건 <p>【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진 문의사항 포함 92건

2)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편 성]	
결방 제언	<p>○ 「2TV 생생정보」 (4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0. 31.(화) 2TV (18:40-19:50) - 매일 저녁 재미있게 시청한다. 그런데 이날 야구 중계로 결방이 되어 너무 속상했다. 앞으로는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결방 제언	<p>○ 일일드라마 「우아한 제국」 (1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0. 31.(화) 2TV (19:50-20:30) - KBS 2TV 일일드라마를 꾸준히 시청 중이다. 그런데 「우아한 제국」이 유독 결방이 잦다. 한때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문에 한동안 결방이 되었는데, 이날은 프로야구 중계로 또 결방이 됐다. 고정 시청자들이 있으니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결방 제언	<p>○ 「더 라이브」 (4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0. 31.(화) 2TV (23:00-24:00) - 평소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다가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늦은 시간 편성임에도 빠짐없이 시청할 정도로 애청자인데, 이날 결방이 되어 아쉬웠다.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채워주는 알찬 방송이기에 가급적이면 결방되지 않길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의견	세부내용
[보 도]	
<p>보도 요청</p> <p>출연자 섭외 제언</p>	<p>○ 「KBS 뉴스광장」(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TV (월-토) (06:00-07:50) - 매일 아침 「KBS 뉴스광장」을 시청하는데, 자막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보여줄 때가 있고 보여주지 않을 때가 있다. 계절별 미세먼지 농도가 다르고, 특히 가을에 초미세먼지 독성이 강하다고 한다. 11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일기예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집중적으로 다뤄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p>○ 「사사건건」 ‘김포 서울 편입 논란…쟁점?’(3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0. 31.(화) 1TV (16:00-17:00) -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출연해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언론인이자, 관련 전문가가 아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고, 이미 많은 매체에 출연 중이라서 시청자들에게 전문적인 의견이나 새로운 의견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출연자가 아닌 것 같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드라마]	
출연자 호평	<p>○ 월화드라마 「혼례대첩」(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0. 31.(화) 2TV (21:45-23:05) - 조선시대 청상부마와 청상과부가 원녀와 광부를 중매한다는 설정이 신선하고 흥미로워 재미있게 시청했다. 특히 심정우 역을 맡은 로운 씨의 연기가 좋았다. 「연모」 때부터 눈여겨 봤는데, 또 퓨전사극에 섭외되어 반갑다. 앞으로 재미있게 시청하겠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의견	세부내용
[라디오]	
진행자 호평	<p>○ 「홍사훈의 경제쇼」(3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0. 31.(화) 1R (16:05-16:55) - 최근 방송을 청취하다보면 진행자 홍사훈 기자가 하차를 암시하는 발언을 자주 한다. 해당 방송의 애청자로서, 또 홍사훈 기자를 신뢰하는 청취자로서 너무 아쉽다. 여러 방면에서 좋은 진행을 보여줬는데 왜 하차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계속 진행을 맡아주었으면 한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